

소리로 보는 세상



시선집중

점자 활용 증대를 위한 짧은 소고

테마기획

2016년 11월 4일은
'제90주년 한글점자의 날'입니다.

인 터 뷰

헌법재판소의 헌법 동화 녹음 봉사를
기획한 김해웅 심의관 님

포 커 스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꿈꾸는 진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02 | 목차

03 | 점자로 말해요 - 감기

04 | 시선집중 - 점자 활용 증대를 위한 짧은 소고
/ 김두현(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출판팀장)

06 | 테마기획 - 2016년 11월 4일은 '제90주년 점자의 날'입니다.

08 | 인터뷰 - 헌법재판소의 헌법 동화 녹음 봉사를 기획한 김해웅 심의관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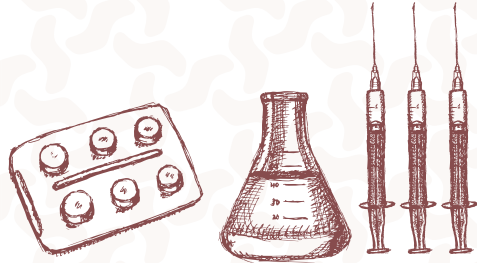
10 | 포커스 -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꿈꾸는 진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첼로가 준 선물 / 박관찬(시각1급_경상북도 포항시)

13 | 월드 리포트 - 2016 리우 패럴림픽의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보아오 마이아
- 일본 시각장애인, 열차 치여 숨지는 사고 잇따라

14 | 뉴스앨범 - 제37회 흰지팡이 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 성황리에 마쳐
- 한시련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2016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 2016년 시각장애인 신바람 노래자랑 개최
- 제90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탈 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KOREA BLIND UNION

손으로보는세상 2016년 11월 196호

발행일 2016년 11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6925,1117

홈페이지 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

가을의 중턱에 접어들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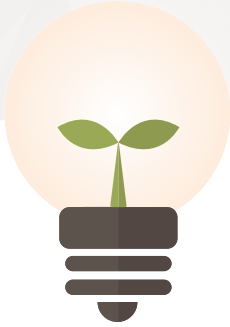
감기는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① ④
② ⑤
③ ⑥

점자일람표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ㅙ	ㅚ	ㅜ	ㅠ	ㅓ	ㅛ	ㅜ	ㅠ	ㅙ	ㅚ	ㅜ	ㅠ	ㅓ	ㅛ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열	영	옥	온	웅	운	울	은	을	인	것	쌍받침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문장부호	.	?	!	,	-	~	.	"	"	'	'				
	:	:	줄임표(...)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대문자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사, 지, 초, 쉼, 짜] 다음에 약자 '영'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점자 활용 증대를 위한 짧은 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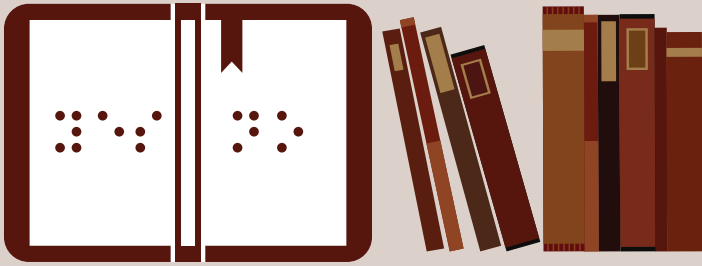
김두현(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점자출판팀장)

송암 박두성 선생님의 한글점자 창안과 보급 이후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점자성경책과 점자교과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종류의 인쇄물들을 점자로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토대로 학습활동, 취업 등 경제활동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 점자프린터 보급이 증가하면서 점자인쇄물의 제작 시간이 급격하게 감소되어 왔으며 제작물의 종류도 다양해 졌고 제작량도 증가하였다. 그에 영향을 받아 점역교정사 자격제도가 도입되면서 점역이 더욱 전문화 되었다. 2000년대 초반 점역소프트웨어가 무료로 보급되면서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 점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매체에 점자가 적용되었다.

기존의 점자인쇄물은 시각장애인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해 제작되었지만 근래에는 점자인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도 생겨나 점자인쇄물의 상용화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이후 점자적용의 다변화는 계속 되었으며 종이 외에 아연판, 알루미늄판, PET(합성수지류)판 등에 직접 찍어 축지 하던 방식에서 인쇄 대상물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점자(점형)가 있어야할 위치에 액상물질을 떨어뜨려 점자인쇄물을 만드는가 하면 요즘은 3D프린터를 활용하여 각종 소재를 쌓아가며 점자물을 구현하기에 이르렀다. 경증 등록시각장애인의 증가와 중증시각장애인의 컴퓨터,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마트폰의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우편으로 전달되는 점자인쇄물의 구독요구가 낮아지고 있고 이는 점자해독률과 연관되어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많이 쓰지 않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으며 점자홍보물을 제작해오던 공공기관 등에서는 관련 예산을 축소해 가고 있다.

점자를 읽는 것 보다 오디오물을 듣는 것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정확한 문자정보로서의 전달력은 가지지 못한다고 여겨진다. 물론 점자홍보물을 제작하는 일부 공공기관 중에 점자와 오디오물을



병행제작하는 곳도 있지만 점자만 제작하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홍보비가 감소함에 따라 점자인쇄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의 이러한 문제들은 점자홍보물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과 직결되는 편의시설물 설치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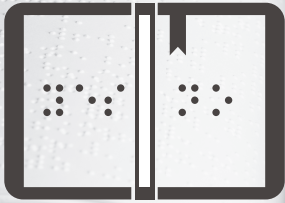
따라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일환으로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인쇄물 및 홍보물에 대한 접근을 점자를 통해 시각장애인이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문과 잡지류 및 기관과 기업에서 발행하는 사보 등이 스마트폰의 활용 증가에 따라 활자 인쇄물 보급에서 디지털인쇄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런 경우 모바일접근성을 갖춘 후 서비스를 제공하면 시각장애인도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컴퓨터를 활용해 볼 수 있는 웹진 등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보급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개선하도록 하는 노력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적극적으로 권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소비자인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해당 기관에 전달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요구하여야 한다. 더욱 더 나아가 2017년 5월 30일 시행될 '점자법'을 통해 우리 시각장애인의 고유문자인 점자의 활용을 확대해야 하겠다.

점자활용의 증대를 위해 점자법 시행령에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간으로 2차적인 제공방식은 개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국민, 시민, 소비자로서 필요한 정보를 점자를 통해 얻을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하겠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우리만의 글자를 당사자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며, 언젠가는 모두에게서 잊혀버릴 수도 있다. 시각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고유의 언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활용 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다.

2016년 11월 4일은 제90주년 점자의 날입니다.



볼록한 6개의 점.

손으로 읽는 시각장애인의 언어인데요.

‘제90주년 점자의 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1월 4일은 시각장애인의 문자인 점자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올해는 1926년 11월 4일 송암 박두성(1888년 4월 26일 - 1963년 8월 25일) 선생이 반포한 한글점자가 90주년을 맞아 더욱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시각장애인은 눈으로 글자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으로 만지며 읽을 수 있는 점자를 사용합니다. 한글점자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한글점자가 없어 일본어 점자를 사용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송암 박두성 선생이 1920년 8명의 제자들과 비밀리에 조직한 ‘조선어점자 연구위원회(육화사)’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다수의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탄생한 것이 바로 현재 사용하는 점자인 ‘훈맹정음’입니다.

해방 이후 ‘훈맹정음’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졌으며, 각종 기호의 점자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전해 온 점자연구활동은 1967년 7월 전국 맹학교 대표들이 모여 ‘한글점자연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면서 점자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을 이루는 점자(세로3, 가로2)는 각 점에 1~6까지의 번호를 붙여 사용하게 됩니다. 6개의 점을 조합해 64개의 점을 만들 수 있으며, 이 조합들에 한글 자음, 모음 등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한글점자입니다.

현재 한국점자규정에서는 풀어쓰기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한글, 수학, 과학, 음악, 컴퓨터 점자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글점자를 기념하기 위한 11월 4일 ‘점자의 날’이 되면 시각장애인 관련 기관에서는 점자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제90주년 점자의 날을 맞아 이룸센터 및 국회의사당 역사 내에서는 기념식과 유공자 포상, 점자 체험 등의 행사가 마련되었습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사 내에서는 점자도서 및 촉각도서 전시, 점자스티커 및 명함제작, 시각장애 체험 등 시민들이 점자를 체험해볼 수 있는 점자체험부스가 마련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016년은 점자법이 제정되면서 한글 점자가 공식 언어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어 ‘점자의 날’이 가지는 의미가 더욱 깊은데요. 많은 사람들이 제90주년 점자의 날 및 점자법 제정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점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길 바랍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 동화 녹음 봉사를 기획한 김해웅 심의관 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헌법재판소에서
쉽고 재미있는 헌법 동화를 녹음 도서로 제작하였는데,
김해웅 심의관 님을 통해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 좌측부터 헌법재판소 김현정 사무차장, 헌법재판소 김용현 사무처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박준석 관장,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김두현 팀장, 헌법재판소 김해웅 홍보심의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에 대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법과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은 법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역할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하고 국가와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존립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37회 흰지팡이 날을 기념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도서를 제작하셨는데요. 기획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이기도 하지만 저희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일과도 관련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사회 소수계층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께서 재판소 입구에 시위하시는 분들을 위한 파라솔을 설치하실 정도로 사회의 면면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 헌법 동화 녹음도서 제작의 기획과 더불어 직접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 소장



*이정미 헌법재판관

이번에 녹음된 도서가 전래동화를 각색한 헌법 동화라고 들었습니다. 헌법 동화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당히 발전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해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 가치에 대한 교육인데요. 민주주의의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은 편이며, 자신이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 동화는 이처럼 우리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헌법에 대해 어릴 때부터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래동화에 헌법 정신을 담았습니다.

재판소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에 지속적으로 힘쓰시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정보의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녹음도서 제작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녹음도서 제작 봉사를 진행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또 헌법 재판소의 녹음도서 제작 봉사를 통해 바라는 변화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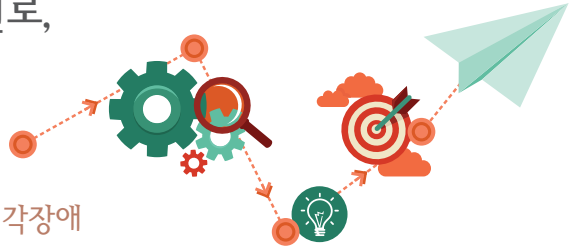
녹음도서 제작을 자주 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아쉬운 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다보니 정기적으로 녹음도서를 제작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와 같은 상황이 저를 비롯한 재판소 직원들에게 가장 아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의 녹음도서 제작 봉사를 통해 가장 크게 바라는 변화는 사회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재판소에서 제작한 녹음도서가 있다는 사실이 보도 자료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고 국민들이 흰지팡이 날이나 시각장애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면 그것이 저희가 녹음 봉사를 통해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ourt.go.kr)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수화통역이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의 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수화를 영상으로 제작해 청각장애인들도 영상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꿈꾸는 진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난 9월과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시각장애 및 시청각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종개발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요.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지난 9월 5일, 대구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내 열린마당에서는 대구대학교에 재학 중인 시각장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번째 직종개발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들이 모여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조금 더 많은 시각장애 대학생들이 꿈꾸는 직업 환경을 알아보기 위해 두 차례의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0월 6일에는 나사렛대학교의 정남수기념관에서 시각장애 대학생 및 시·청각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종개발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시각장애인 당사자로서 개발원 정책연구실에 재직 중인 서원선 박사와 직업재활부 사업평가팀 문용준 팀장이 함께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혹은 시·청각장애 대학생들이 주로 사회복지나 안마사 등 일부 국한된 직업군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또 시·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하는 15개 장애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시·청각장애에 대한 개념 정의나 지원제도, 정책, 복지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드러났는데요. 이에 대해 정책 사각지대의 시·청각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충분한 지원체계 및 직종개발 구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대학생들은 글로벌 시대에 발맞추어 어학 연수 프로그램이나 인턴십 체험 등과 같은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웹이나 모바일 접근성과 관련한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뒤 개발원의 문용준 팀장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시각장애인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1년에 수천 명이 취업을 하지만 헬스키퍼 등 안마업에 대다수가 종사하는 것으로 나온다”며 “한국도 선진국의 시스템 도입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내년에 시각장애인 직종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상·하반기 중 도출된 중간 결과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살펴보고 시범사업, 본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첼로가 준 선물

박관찬(시각장애_경상북도 포항시)

감성적인 멜로영화를 좋아했던 저는, 우연히 일본영화 ‘굿바이(Good-bye)’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영화의 내용보다는 남자 주인공이 첼로를 켜는 모습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아 혼란스러울 때나 외롭고 힘들 때 첼로를 켜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안정을 찾는 것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시각과 청각에 중복으로 장애가 있는 시청각중복 장애인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청각장애로 인해 첼로의 소리가 어떤 건지도 전혀 모르고, 첼로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무했지만, 배우고 싶다는 하나의 의지만으로 영화를 본 뒤부터 1년 동안 첼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꾸준히 모은 돈으로 첼로를 배우기 위해 활동보조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첼로 선생님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첼로 선생님께 메일을 썼습니다. 시청각중복장애가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만, 영화를 본 계기로 첼로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정말 간절히 첼로를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사실 메일을 보내놓고도, 그동안의 경험에 미루어 첼로를 배울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첼로 선생님의 답장은 저의 풍부한 감수성을 자극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첼로는 마음과 영혼으로 연주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해보자는 선생님의 답장을 읽으면서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 그 때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첼로 선생님을 만나 첫 레슨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슨하기로 한 교회에서 만나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새 첼로를 받았습니다. 소프트 케이스에서 나온 첼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움의 미소가 저의 얼굴에 가득 피어올랐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처럼 첼로에서 나는 싱그러운 나무 냄새, 부드러운 촉감 하나하나가 너무나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활을 잡고 첼로를 켜보게 되었습니다. 첼로의 줄 위에 활을 잡은 손을 얹어 오른쪽으로 당기는 그 순간,

첼로에서 나는 큰 진동이 아주 선명하게 전달이 되어왔습니다. 그 때 느꼈던 기분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첼로를 배우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온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전 하루일과에서 첼로를 켜는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일 만큼, 첼로와 음악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첼로가 정말 예민한 악기이기 때문에, 왼손으로 첼로의 음정을 정확하게 짚어야 하지만, 저의 청력으로 인해 음정을 구분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첼로의 왼손을 짚는 부분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거기를 짚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스티커를 떼어내고 감으로 왼손을 짚고 연주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기대를 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년이 조금 넘는 시간 첼로를 배웠습니다. 아직은 초보이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또 장애가 있는 만큼 명확한 한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스스로 내린 결정 중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첼로를 배우기로 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연주를 하더라도, 저의 연주를 보고 듣는 사람들은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 특히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첼로를 켜는 사실을 먼저 인지하게 됩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장애로 인해 첼로를 배우는 데에 걱정이 되었던 건 사실이지만 순수하게 첼로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가져왔고 그 의지에 열정을 더해서 배워오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음에도 연주하는 게 대단하고 멋진 게 아니라, 순수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첼로를 연주하는 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첼로 연주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켜줄 수 있도록 작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첼로를 배우게 된 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행복과 평안함을 느끼게 된 만큼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도전, 그 도전에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을 모두 즐기면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첼로가 저의 인생에 큰 선물을 주었습니다.

2016 리우 패럴림픽의 시각장애인 사진작가, 보아오 마이아

이번 2016리우 패럴림픽 조직위원회에는 처음으로 시각장애인 사진작가가 등록되어 활동했습니다. 사진작가의 이름은 보아오 마이아(Joao Maia)인데요. 보아오 마이아는 41살의 남성으로 원래는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우편배달부로 일을 했습니다. 마이아는 28살 때 포도막염을 앓은 이후 시력을 잃어 현재 대상을 가까이에서 볼 때만 형체와 색깔을 볼 수 있는 상태지만, “사진을 찍을 때 꼭 눈으로 봐야할 필요는 없어요. 내 눈은 내 마음 속에 있어요.”라고 말합니다.



처음 마이아가 사진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일반 카메라를 사용했지만 현재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사진을 찍는데요. 오토포커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이아의 사진은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 @joaomaiafotografo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일본 시각장애인, 열차 치여 숨지는 사고 잇따라

일본에서 시각장애인이 선로에 떨어져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일본시각장애인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252명 가운데 37%인 93명이 선로 추락 경험이 있다고 밝혔으며 60%인 151명이 추락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90%인 227명이 스크린도어 설치를 꼽았습니다.



현재 일본의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2016년 3월말 기준으로 1일 10만 명 이상 이용하는 약 250개 역 가운데 스크린 도어를 설치한 곳은 약 30%에 그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지난 8월에도 도쿄 메트로 긴자 선 아오야마 1초메 역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55세의 시각장애인 남성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되어 일본 열차 승강장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제37회 흰지팡이 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10월 14일, 부산광역시외의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시각장애인 및 관계인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제37회 흰지팡이 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가 열렸는데요.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이루어진 이번 행사는 ‘흰지팡이 현장 낭독’을 시작으로 시각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힘쓴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시상, 내빈의 축사, 시각장애인 노래자랑, 율놀이 등 각종 문화행사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10월 한 달 간 전국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지부에서는 흰지팡이 날 기념 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많은 국민들이 흰지팡이 날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한시련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2016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가 2016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 단체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통문화상은 서울의 교통 환경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봉사하는 훌륭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이번에 수상한 한시련 시각보조센터는 그동안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를 위한 설치매뉴얼을 제작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 보급하였으며, 서울시 소재 1~8호선 지하철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및 서울시 관할 도로, 보도 등의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모니터링하여 잘못 설치되거나 운영되는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요청을 통한 개선을 이끌어내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안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시상식은 지난 10월 28일 상암동 TBS 도로교통방송 라디오 공개홀에서 개최되었으며, 한시련 시각보조시설중앙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하여 최우수 상패를 수상하였습니다.





2016년 시각장애인 신바람 노래자랑 개최

지난 10월 28일,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에서 2016년 시각장애인 신바람 노래자랑 '나도 한 번 불러본다!'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날 행사에는 노원구에 거주하는 1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하모니카 동호회인 '라시하모니카'팀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하모니카 교실 '올림'이 함께 공연을 펼쳤으며,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함께 구성된 '노원합창단'의 사전공연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노래자랑을 통해 참가자 14명이 자신의 노래실력을 보여주었으며, 1등, 2등, 3등 각 1명씩 총 3명에게 전통문화상품권이 수여되었습니다.



제90주년 점자의 날 기념식 및 세미나 개최

2016년 11월 4일은 한글점자가 90번째 생일을 맞은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기념식을 비롯하여 세미나 등 각종 부대행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올해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점자기본법이 통과된 해로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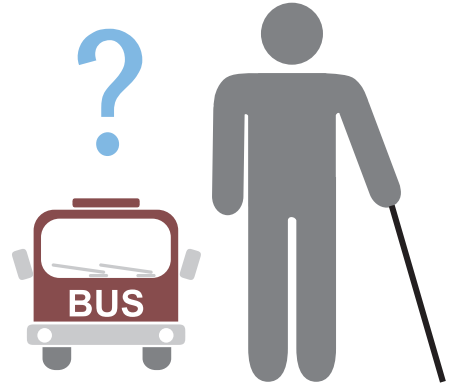
1부 기념식에서는 점자발전에 관한 경과보고 후 점자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등이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한국점자,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은?'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습니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9호선 국회의사당역 역사 내에서 점자도서 및 촉각도서 전시, 점자스티커 및 명함 제작, 시각장애 체험 등 일반 시민들이 점자를 접해볼 수 있는 체험 부스도 운영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탈 때

시각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때 가장 난처한 경우가 지하철과 달리 정류장에 멈추는 버스의 번호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시각장애인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정류장에 서있는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몇 번 버스를 타십니까?”하고 먼저 물어봐 주시고, 여유가 되신다면 함께 기다려 버스탑승을 도와주세요.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대 상 초·중·고등학교 및 사회인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하여 진행

체험시간 3시간 이내(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상담·접수 02-950-0133 박승만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